



지역을 넘어 세계로! 과거를 넘어 미래로!

발행처 | 사단법인 호남미래연대

전화 | (062)383-9061~2

팩스 | (062)383-9063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89-1(3층)

장애를 넘어 국적을 넘어 “하나되다”

‘나눔과 동행의 한마당’ 성료...다문화자녀·시각장애인 등 300여명 참여

(사)호남미래연대(이사장 정용화)가 마련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함께 어울리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성황리에 열렸다.

호남미래연대는 지난 5월 23일 오전 10시 히딩크 드림필드 광주구장에서 ‘나눔과 동행의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히딩크 드림필드 광주구장 개장 1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행사는 호남미래연대 회원을 포함한 광주시민, 새날학교(다문화) 학생과 학부모, 세광학교(시각장애인) 학생, 거스 히딩크 한국재단 관계자, 새터민(탈북자)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빵 한 조각도 함께 나누다’는 취지에서 호남미래연대 회원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과 금품 등을 기부해 행사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1부 축하공연 및 기념식, 2부 소통마당, 3부 화합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축하공연에는 새날학교 재학중인 고

려인 자녀들의 중앙아시아 전통춤 공연,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참빛누리꾼의 풍물공연, M크로마하프단의 하프공연이 펼쳐져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음악인 이규대 회원은 통기타 연주로 참가자들을 신명나게 만들기도 했다.

소통마당에선 회원들이 눈을 가리거나 손을 맞잡고 시각장애인 및 다문화 어린이들과 축구 경기를 하며 감동과 재미를 선사했다.

화합 한마당에서는 장기자랑, 레크레이션, 경품추첨 등이 진행됐다.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를 실천하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면서 “장애인과 엄마 찾아 한국에 온 다문화 아이들이 꿈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따듯이 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히딩크 감독은 축전을 보내 “드림필드가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돼 너무 기쁘다”면서 “장애나 배경에 관계없이



(사)호남미래연대 주최로 5월 23일 광주광역시 서구 유덕동 히딩크드림필드 광주구장에서 열린 ‘나눔과 동행의 어울림 한마당’에서 회원들이 시각장애학생들과 축구 경기를 하고 있다.

/양한성 회원

서로 도움을 주면서 드림필드에서 즐기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히딩크 드림필드는 히딩크 전 축구 대표팀 감독이 장애인에게는 꿈과 재능의 공간을 제공하고, 장애인·비장애인의 소통을 위해 국내 주요 도시에 건

립중인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이다.

광주구장은 (사)호남미래연대 노력으로 광주 서구 유덕동 세광학교 옆 영산강 둔치에 건립됐다.

/호남미래연대 홍보실

올림



정용화

(사)호남미래연대 이사장

“우리는 행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낙관적인 사고방식은 중학교 때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의 영향이 컸다.

월남전에서 포탄에 맞아 손과 발, 사지를 모두 절단해야 할 처지에 있는 병사가 했다는 말, “하마터면 죽을뻔했네!” 하고 웃더라.

그 이야기는 힘들 때마다 나에게 위로를 줬고, 새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었다. 덩으로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여유있게 세상을 보는 눈도 갖게 해주었다.

그런데 정말로 팔다리가 없이 몸통으로만 태어났지만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았다.

니 부이지치.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본 그는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였다. 몸통만으로 굴러

다니고 기어다니면서도 축구, 골프, 수영, 스카이다이빙까지 못하는 운동이 없고, 몸통에 바짝 붙어있는 발가락 두 개(분리 수술후)로 글쓰기는 물론 전자드럼 연주까지 하는 모습은 신기한 모기가 아니라 감동적인 기적 그 자체였다.

더 큰 올림은 그의 맑고 밝은 표정과 미소, 그리고 생기있는 말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야말로 ‘복음’이었다. “전제 삶에 한계가 없다고 믿어요” “가질 수 없는 것에 화내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요” “할 수 없는 것 대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 모두 가치를 가진 소중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을 사랑해요” 자기를 놀리고 괴롭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이예요. 날 괴롭힐 필요없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죽으면서도 사랑을 실천한 예수를 떠올리게 했다.

4개월 동안 친엄마에게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너는 지금 세상에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용기와 평화가 무엇인지를 웅변하고 있다.

너는 사지 멀쩡하고 너무나 많이 가진 나를 돌아보게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둘러보게 한다. 이른바 ‘국민행복시대’에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다. 어른들의 이혼율, 자살율, 저출산율이 세계 최고수준이고, 우리 아이들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행복지수는 평균 이하라고 한다.

누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너은 말한다. “행복은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과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고 미움은 미움을 낳는다고 한다.

행복한 사람을 보면 나도 행복해지고 불행한 사람을 보면 내 마음도 편치 않다. 올해 30세인 너이 작년에 아름다운 아내와 장애없는 아이까지 얻었다는 말에 나까지 행복해졌다.

장애인은 우리가 행복함을 일깨워주는 선생이다. 우리는 행복할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행복할 의무가 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나는 이상한 셈법을 가지고 있다고 아내에게 핀잔을 가끔 듣는다. 시장이나 관광지에서 바가지를 써도 그 돈으로 혼자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봉’ 쓴 사람이 큰소리친다.

큰아이가 대학입시에 실패해도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열려있다고 하고, 사고를 당해 크게 다쳐도 더 크게 다치지 않은게 얼마나 큰 행운이냐 하는 식이다.

히딩크 드림필드, 우리곁에 이렇게 왔습니다



건립 예정지 2차실사



건립 예정지 1차실사



건립 양해각서 체결



히딩크감독 광주 방문



건립 부지 확정회의



공사착공

▼ 히딩크 드림필드 추진 일지 ▼

일시	내용
2010년 4월	히딩크 감독-정용화 (사)호남미래연대 이사장(당시 광주광역시 후보)-황선권 광주시각장애인협회장, 드림필드 광주구장 건립 양해각서(MOU) 체결.
2011년 2월	광주광역시 히딩크 드림필드 건립 예정지 추천
2011년 3월	히딩크 재단 건립예정지 실사(1차)
2011년 4월	광주시·히딩크 재단, 건립예정지 실사(2차)
2011년 6월	건립 후보지 광주시 서구 유덕동 영산강 둔치 최종 확정
2011년 11월	드림필드 광주구장 착공
2012년 3월	드림필드 광주구장 완공
2012년 5월	드림필드 광주구장 완공 및 개장 기념식 (히딩크 감독 강운태 광주시장 등 참석)
2013년 5월	드림필드 광주구장 개장 1주년 기념 '나눔과 동행의 어울림 한마당' 개최



드림필드 완공



드림필드 현장 점검

히딩크 드림필드 VI

본 구장은 광주의 시각장애 아동들의 꿈과 재능을 양성하고자 하는 취지 아래 2002 월드컵 대한민국 국가 대표 축구선수단 감독 거스 히딩크님과 그의 파트너 알리자베스 피나스님이 설립한 거스 히딩크 재단의 기부로 설립되었으며 시각장애 아동들과 광주시민들이 축구를 통해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

후원사: (사)호남미래연대, 파파존스코리아(주), 드림필드추진립안내문,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



드림필드 준공 및 개장 기념식



시각장애인들과 축구하는 히딩크 감독

나눔과 동행의 어울림 한마당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후원인	금액	후원인	금액
한국농어촌공사	5,000,000	주영화 이사	200,000
정용화 이사장	2,000,000	최승호 이사	200,000
최용훈 이사	1,000,000	최영준 이사	200,000
김보곤 이사	500,000	김선주 회원	100,000
김용구 이사	1,000,000	노미덕 회원	100,000
박도하 감사	300,000	박승환 회원	100,000
박종 이사	1,000,000	박찬모 회원	1,000,000
박효철 이사	300,000	오방용 회원	200,000
이순옥 이사	500,000	이규대 회원	300,000
이한영 이사	500,000	이을용 회원	100,000
전갑수 이사	1,000,000	최진영 회원	300,000
조정관 이사	100,000	현고 스님	500,000

후원인	품목	후원인	품목
광주전남중소기업인모임 '아인'	아동복 40벌	전기범 전기범치과 원장	치과 스케일링권 5매
광주신세계백화점	테이블선풍기 12대 외 4종	NH농협 광주지역본부	잡곡쌀 4kg 15포
관택용 청운오택뱅크주 대표이사	스포츠고글 4개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쌀화환
김성진 영암마트 대표이사	음료·생수·과일 40만원 상당	김문옥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화분
손봉수 호남미래연대 고문	세제·비누세트 등 30만원 상당	이규대 & 이지람	화환
오병용 T&T 대표 동광주로터리 회장	손목시계 20개 40만원 상당	박후곤 회원	음료수(블루베리)
이은석 (주)정진 대표이사	자전거 5대	양희성 회원	사진·동영상촬영
이영환 호남미래연대 이사	빵·제과 등 40만원상당	양수연 회원	사진·동영상촬영

나눔과 동행의 한마당

“부딪히고 넘어져도 함께잡은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서로서로를 위한 마음... 언제나 함께 하고 싶습니다”



▲ 에 잘하는데



▲ 중앙아시아 민속춤을 선보이는 새날학교 학생들



▲ 공은 어디에?



▲ 이기자~ 이기자~



▲ 어서오세요! 선물 많습니대



▲ 열현하는 M크로마하프단



▲이렇게 좋을수개



▲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참빛누리꾼' 풍물공연



▲ 자-같이 가자



▲ 이규대 회원의 통기타 공연



“새날학교, 꿈과 희망의 터전이 됐어요”

호남미래연대 노력 학력인정위탁기관 지정 12개국 75명 '열공'... 초·중·고 연계 시스템

(사)호남미래연대가 후원 활동을 전개중인 광주 새날학교(교장 이천영)가 중도입국 다문화 자녀 및 새터민 자녀들의 꿈과 희망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초·중·고 학력인정 위탁교육 체계 구축과 함께 대학생까지 배출해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적에서 입학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삼도동의 옛 평동남 초등학교에 자리한 새날학교에는 현재 12개국 75명의 다문화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부모의 결혼 및 이주로 모국을 떠나 한국에 온 학생들이다.

학생들은 거주지 인근 초·중·고등학교에 학적을 두고 새날학교 한국어와

국사 등 한국사회 적응 능력을 키우고 있다.

새날학교는 국내 유일의 초·중·고 학력인정 다문화 위탁교육기관이다. 규모도 국내에서 최대 규모다.

새날학교는 2007년 개교했다. 하지만 4년 가까이 학력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운영비 부족으로 폐교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상급학교 진학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갈 수 없었다.

이같은 상황을 접한 호남미래연대는 정용화 이사장을 중심으로 학력인정기관 지정 및 학교살리기 활동을 전개해 2011년 6월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초·중·고 학력인정위탁교육기관 지정을 이끌어냈다.

또 국제로터리 3710지구 후원을 받



아 통학차량과 교육용컴퓨터를 마련해 주고, 교내 기숙사 리모델링, 여학생용 기숙사(아파트) 2채 마련, 현금 지원 등 다양한 후원활동을 펼쳤다.

이런 노력으로 새날학교는 2012년 34명 중학교정 졸업생과 동시에 고교 과정 진학생을 배출했다. 올해는 고교 학력인정위탁기관까지 지정받아 초·중

고 연계교육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이천영 새날학교 교장은 “정용화 이사장을 포함한 호남미래연대 회원들의 도움으로 폐교위기 학교가 꿈과 희망의 터전으로 거듭났다”면서 “새날학교 입학생이 전국적으로 찾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호남미래연대 홍보실

“힘들어도 포기않고 대학진학 꿈 이뤄” 새날학교 첫 졸업생 현설연 양



대학에 합격한 현설연양과 장학금을 지급한 전갑수 호남미래연대 이사.

“호남미래연대 도움으로 꿈을 이 어갈 수 있게 됐어요.”

새날학교 출신 첫 4년제 대학생 (광주 송원대학교)인 현설연(19) 양은 지난 2년이 꿈만 같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한국 중학교 졸업장을 받게 되고, 검정고시와 대 입수능을 거쳐 대학에 합격해서다.

조선족으로 중국 연변에서 태어 난 현양은 16살이던 2010년 한국에 왔다.

공부를 계속하고자 새날학교 입 학 2년 가까이 공부했지만 졸업장 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크게 낙

담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상 급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현실에 방 황도 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 는 중학졸업장을 받을 수 있으리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설연양의 바람대로 새날학교는 2011년 6월 학력인정기관이 됐다.

설연양은 “새날학교 입학후 앞날 이 불투명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라고 걱정했는데 이젠 자신감을 갖 고 공부한다”면서 “대학생이 되기까 지, 또 대학생이 된 뒤에도 호남미 래연대 이사님을 비롯한 회원분들 이 항상 격려해줘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설연양이 대학에 합격하자 호남 미래연대는 전갑수 이사가 장학금 지급과 함께 멘토를 자임하는 등 많 은 회원들이 격려하고 있다.

설연양은 전문적인 진로 상담사 가 돼 비슷한 처지의 다문화자녀들 이 새로운 땅 한국에서 꿈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도록 도움을 줄 생각이 다.



“준비된 통일은 축복...의지결집 노력해야”

‘통일생각’ 광주전남지부, 류우익 전 장관 초청간담회

정용화 (사)호남미래연대 이사장이 대표를 맡은 ‘통일생각’ 광주·전남지 부는 지난 5월 3일 광주 신영파크호텔 에서 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사진)

간담회에서 류 전 장관은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지만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라며 “그 시작은 지역주민 의 관심과 올바른 인식에서 출발한다” 고 밝혔다.

류 전장관은 “실질적 통일 준비를 위한 ‘통일재원 마련’ 차원에서 상징적 으로 통일항아리를 제작했다”면서 “국 민의 통일의지를 결집시키기 위한 노 력을 계속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적극적인 통일외교를 통한 우호적

인 국제환경 조성과 북한이탈주민포용, 통일에 대비한 법적·제도적 준비 노 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힘주어 말했다.

간담회에는 윤장현 공동대표, 문무 흥 상임대표, 김필식 동신대 총장, 김현철 금호그룹 전무이사, 흥인화 광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서정성 광주 시의원, 서영진 광주매일 사장, 김남 순 전 조선대사법대학장, 손호상 CBS 광주본부장, 김용욱 CTS 광주지사장, 김장권 극동방송 북한스쿨교장, 오경 복 새날학교 홍보이사, 김경림 광주새 터민센터 대표를 비롯한 사회각계 인 사들이 참여해 통일준비에 대해 폭넓 고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 졌다.

회원동정

- ▶ 김보곤 이사(DK산업) 대표이사) 국제로터리 3710지구 총재 취임
- ▶ 김홍업 이사(조선대 법대 교수) 녹색당 광주시당 공동운영위원장 선임
- ▶ 최영준 이사(광주MBC 보도위원) 관현장학재단 이사장 취임
- ▶ 박승환 회원 수산물 광주신세계 납품
- ▶ 류인구·김명일 회원 광주시기독교교단 협의회 부회장 임명
- ▶ 김보곤 이사(DK산업) 대표이사) 국제로터리 3710지구 총재 취임
- ▶ 김홍업 이사(조선대 법대 교수) 녹색당 광주시당 공동운영위원장 선임
- ▶ 최영준 이사(광주MBC 보도위원) 관현장학재단 이사장 취임
- ▶ 박승환 회원 수산물 광주신세계 납품
- ▶ 류인구·김명일 회원 광주시기독교교단 협의회 부회장 임명
- ▶ 김용욱 이사(미래경영개발연구원) 한국전력 조직진단프로젝트·서울신용보증재단 평가프로젝트 수행
- ▶ 박종 이사(아이퍼스트 아동병원장) (사)광주영상위원회 이사장 취임

후원신청 및 회비 정기납부 안내

회원 여러분의 회비 및 후원금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사용됩니다. 호남미래연대는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기반으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연구·다문화가정돕기 저소득 자녀지원 등 다양한 사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협 : 355-2626-2727-03
- 광주은행 : 112-107-428964
- 신한은행 : 100-026-752380
- 하나은행 : 724-910007-69505
- 국민은행 : 777101-01-277571

후원계좌(예금주 : 사단법인 호남미래연대)